

# 스님들 장터 세계인 품 속으로

제3회 '팔공산 승시' 축제  
10월 12일부터 4일간

신라 이후부터 스님들이 필요한 물품을 교환하던 산중장터로 시작된 승시. 조선 초기 마지막 승시로 열린 부인사 승시의 맥을 잇는 '팔공산 승시'가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대구 동화사 집단시설지구 내 씨네80 자동차극장에서 제3회 대회를 연다.

전통문화유산 발굴 및 지역문화관광 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구광역시와 동화사(주지 성문)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팔공산 승시는 '팔공산의 역사문화 세계인의 품속으로' 슬로건 하에 다양한 전통문화공연이 펼쳐진다.

첫날인 12일에는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만남', 13일에는 '젊음과 함께하는 불교', 14일과 15일에는 '불교문화는 우리의 자산이다'를 주제로 각 테마별로 진행된다. 올해에는 지난 12회 대회와 달리 대구 지역에서 특화된 불교음악과 전통음악이 선보여 눈길을 끈다.

동화사 법고 공연을 비롯해 찬불가경연대회, 사찰의 소리체험, 풍물 공연 등이 진행되며 전통사찰음식시연, 해외불교 문화체험, 천연염색, 판각 및 탁본체험, 단청 및 탕화그리기, 선수행 프로그램, 불교기회전시 등이 이어진다.

특히 사찰에서 필요한 물품을 스님들이 직접 판매하는 산중전통장터 승시를 비롯해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고승들의 기증품 경매, 재비평화의 등 밝히기 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1년 열린 제2회 팔공산 승시대회에서 떡을 매치며 스님들이 즐거워하고 있다.

**'세계인 품 속으로' 슬로건**  
**현대문화, 젊음, 문화유산 테마**  
**해외불교 문화체험 코너 눈길**  
**불우이웃 위한 기증품 경매 진행**

동화사 기획국장 효신 스님은 "승시는 맥이 끊겼던 불교전통이자 한국전통으로 문화유산으로 계승발전해야 할 가치가 있다"며 "제3회 전국체전을 기해 대구를 찾은 많은 관광객들이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한편, 동화사는 팔공산 승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7월 15일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능도 스님 등 200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승시 사무실을 개소했다.

팔공산 승시보행위원회는 8월 30일까지 승시 참가자 및 단체를 모집한다. 사전참가신청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성문 스님은 개소식에서 "3회를 맞이한 승시축제가 대구경북지역의 축제를 넘어 세계인의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053)986-9575

손은철 대구지사장

## 茶 문화, 승·속이 한데 어울려 즐긴다

부산차문화진흥원, 제7회 부산국제차어울림 문화제 열어

부산지역에서 생활 속 차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차축제가 열린다. 부산차문화진흥원(원장 이경순)은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4일간 부산문화회관 일대에서 제7회 부산국제차어울림 문화제를 개최한다.

'생활 속의 차문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제차어울림문화제에서는 차 생활이 특수계층의 문화를 넘어 생활 속 문화임을 알리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8월 31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는 선고다인을 위한 추모다례제를 시작으로 '동양유물전'과 '대만차' '일본차' '하동차' 코너 등이 선보인다. 여기에서는 '한일 양국의 차실구미기' 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9월 1일에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차문화 화사적 의미를 고찰하는 세미나를 비롯해 차와 기도, 차행법 연구모임 숙우회의 인

**'생활 속의 차 문화' 주제로**

**8월 31일~9월 2일까지 4일간**

**한중일 다관·다도 시연 등 다재**

다량 공연이 마련돼 개신교와 불교의 행 다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

이날 행사에는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인사들도 대거 참여해 차인

들과 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2일에는 박근형 전남대 교수의 '차와 차의 성문 그리고 차의 종류와 효능' 강연회가 진행되며 차시 백일장을 통해 입상한 작품들을 그림과 만날 수 있는 '차시 시화전'도 개최된다.

그 외 다양한 행사들로 '향로전' '동양 차문화 최다·최초 차구 유물전시회' '초대전 황산' '일본 만복사, 대덕사 조명' '만병도' '통과의례상차림' '차화' '천연염색' 등이 진행되며 허경혜 작품전, 심부용 작품전 등 차인들의 작품전도 열릴 예정이다.

이경순 부산국제차어울림문화제 조직위원장은 "부산은 차 마시는 사람들이 그 어느 지역보다 많은 지역"이라며 "현대인들에게 생활 속에서 차를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051)809-1551

이재진 부산지사장

## 경산 안흥사 군장병 위문법회

경산 안흥사(주지 대용)는 8월 11일 '제2 야전 수송교육단' 소속 군장병 20여 명을 사찰로 초청해 <금강경> 독경 위문법회를 봉행했다.

안흥사 주지 대용 스님은 위문법회에 이어 군장병들과 영양식 공양을 함께 했다. 군 법사 출신인 대용 스님은 수송교육단 내 법당 '정심사'에서 매달 법회를 봉행하며 군복무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대용 스님은 "무더위에 고생하는 불자 장병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법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손은철 대구지사장

## 울산 안민사, 한국 최소형 사찰로 인증

울산 안민사가 한국 최소 사찰로 인증 받았다. 울산 안민사를 비롯한 울산 선암 호수공원의 종교시설 3곳이 8월 15일 한국 조미니 종교시설로 한국기록원 인증을 획득했다.

안민사는 높이 1.8m, 너비 1.2m, 길이 3m인 국내 최소형 사찰로 화제가 된 바 있다. 울산 남구청은 2011년 9월 안민사 건립 이후 신도들의 행렬이 잦아 호수교회, 성베드로기도방 등 이웃종교 시설도 이어 건립했다.

남구청은 평일 평균 1500명, 주말 평균 2만명의 주민이 방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최소형 사찰인 울산 안민사

김두겸 남구청장은 "세계 기네스 등재도 추진할 계획으로 주민들이 쉽고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안식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 절 마당 정갈함을 지키는 것도 전통

절 마당 부처님 만나는 준비공간  
마음 정돈에 쇄석 바닥 등 장애

이른 아침 비질을 하여 곱게 정리되어 있는 절 마당의 정갈함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티끌 하나 없이 쓸어낸 마당은 청아한 스님들과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일본사찰에서는 평정고산수정원을 구성하는 왕모래를 갈퀴로 긁어 일정 간격의 파도문양을 만드는 것을 수행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갈퀴로 정리하여 단정해진 문양을 바라보면서 일본인들은 파

도가 잘랑거리는 내해의 경관을 떠올리고 한다. 교토의 료안지(용안사) 방장 뒷마루에 앉아서 지국이 정원을 바라보는 일본인들의 모습에서는 그들 나름대로 자연을 관조하는 방식을 살필 수 있다.

그런데 일본 사찰의 고산수정원을 보면 왠지 인공적으로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성이 엿보인다. 새벽공기를 조심스럽게 열면서 마당을 비질하는 우리 스님들이 만들어내는 천연성과는 다른 모습이

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마당이 매우 중요한 공간으로 생각되어왔다. 그것은 마당이 탑이 세워지는 중심공간이기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주 불전 앞의 비

위진 공간은 붓다를 만나기 위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준비공간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징적 공간성과 비질하여 만들어진 정갈함은 서로 소통한다.

요즘 들어 절 마당에서 맨땅의 상태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졌다. 비가 오면 질척거리고 또 마당이 패여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쇄석(잘게 부순 돌)이나 석분을 깔기도 하고 심지어는 빨간 벽돌로 포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쇄석을 깔아 놓은 마당은 단아하고 정갈한 이미지보다는 불안정하고 어수선한 느낌을 준다. 더구나 길을 때 나는 좋지 않은 소리는 삼보에 귀의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산란하게 만든다.

편한 것을 찾게 되면 우리가 지나왔던 멧을 잃게 된다. 지난날 절 마당을 비질하면서 기졌던 아름다운 상상력을 편하고 쉽게 마당을 관리하려고 깔아놓은 쇄석 때문에 망가뜨릴 수는 없지 않은가! 절 마당의 정갈함을 지키는 것도 전통의 계승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쇄석을 깔은 뒤 관리를 하지 않아 군데군데 패이고 빗물이 고인 모습은 신도들의 발길마저 돌리게 한다. 사진은 경상북도 보사찰

# 학업성취(수능)100일기도

“관봉 석조여래좌상(갓바위부처님)께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드리면 누구나 한가지 소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선본사에서 12가지 큰 자비를 항상 행하시어 만중생을 두루 구제하여 해탈케 하시는 갓바위 약사여래부처님전에서 학업성취(수능)100일기도를 봉행합니다.

<약사경>에 이르기를 12가지 대원 중 세번째가 “중생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불자님들께서는 학업성취(수능)100일기도에 무루 동참하시어 원하는 비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 ☞ 입 재 2556(2012)년 8월 1일 (음 6월 14일) 오전 10시
- ☞ 회 향 2556(2012)년 11월 8일 (음 9월 25일) 오전 10시
- ☞ 동참금 10만원

### «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기도 »

- 일 시 매주 토요일 밤 10시~3시
- 장 소 갓바위 약사여래부처님전(우천시 유리광전)
- 집 전 1, 3, 4주 : 선본사 대중스님, 매월 둘째주 : 성마스님
- ※ 기도에 동참하신 모든 분께는 약사여래불 인장을 찍어 드립니다.

### « 백중 영가천도 기도 »

- 장 소 선본사 극락전, 갓바위 유리광전
- 시 간 오전 10시
- 동참금 영가 1위 1만원, 가족축원 5만원
- 설판동참금 1백만원

### « 범종 불사 »

- 1인 1구좌 30만원
- 설판 시주 100만원
- ※ 설판 시주자는 범종 외부에 이름을 새겨드립니다.